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1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7月 10日(月) 11時00分 開式

第41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對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咸京鎬)

(11時00分 開式)

○ 議事係長 咸京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님!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낙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27 4대 동시지방선거로 제2대 평창군의회의가 개원된 이래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2대 평창군의회의의 개원과 민선자치단체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이고 소신있는 책임행정 실시로 행정과 주민이 밀착되고 관청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투자사업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책등을 연구·개발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평창군을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현실적으로 실감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분산을 뒷받침할 사무, 재정등의 지방이양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라 말하는 「지역이기주의」 혹은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성숙된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 민주의식을 함양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이해와 타협으로 민의행정 실천을 실현하여 나간다면 민선자치의 기쁨은 굳은 뿌리를 내려 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자치 1년을 뒤돌아 보고 그동안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2년차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과감히 시정·보완하는데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노력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 주민자치를 이루어야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안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선시대에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행정조직을 주민편의 위주로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咸京鎬 : 다음은 김용욱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 平昌郡守 金容郁 : 존경하는 김낙운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은군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개원된 제2대 평창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게 된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보살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지방자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우리군의 일은 우리 스스로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자치행정의 본질과 지역간 경쟁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보다가깝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제2대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김은 물론 전면 지방자치 출범과 동시 붓물처럼 쏟아

아진 군민의 권리주장과 삶의 질 향상을
촉구하는 지역민원등 크고 작은 지역의
모든 문제를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논의와 타협으로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지역
개발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회
의 발빠른 의정활동등은 군민의 대표기
관으로써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회상을
제2대 평창군의회가 정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지역특성을 부각시킨 가장 지
방적이고 세계속의 평창군으로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2대 평창군의회와 집행부
는 맞고 있습니다.

'98 월드컵 스키대회와 '99제4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그기회로 그간 계획하여온
지역개발사업, 농업소득향상사업, 군민
복지시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양
대 동계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
리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 200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전
되도록 그간 쌓아오신 평창군 의회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대평창군의회 개원 1주년을
계기로 우리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군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
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시금 결집하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제2대 평창군의회 개원 1주년
을 은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평창군
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
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威京鎬 : 이상으로 제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마치겠
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閉式)